

위기에도 빛난 LG전자... 철수 기로 폰사업, 지속성장 좌우



영업익 3조 돌파 등 사상 최대 실적
집콕·비대면트렌드 가진 성장 견인
만년적자 모바일 영업손실 8412억
사업부는 남기고 공장 매각 가능성

LG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모처럼 성장을 향한 닳을 올렸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이 컸던 상황, 올해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등이 성장을 지속할 관건으로 꼽힌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63조2620억원에 영업이익 3조1950억원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1.1%나 증가하며 오랜만에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처음으로 연간 3조원을 돌파하며 저력을 증명해냈다.

LG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콕과



LG오브제컬렉션.

LG전자

비대면 트렌드가 위생가전과 대형 TV, IT 기기 등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실적을 견인한 것은 H&A사업본부다. 연간 매출액 22조2691억

원에 영업이익 2조352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영업이익률도 사상 처음 10%를 돌파하며 수익률도 높였다.

TV 부문인 HE 사업본부도 오랜만에 좋은 성적을 냈다. 매출액 13조1798억

원으로 전년 보다 7.9% 성장, 4분기만으로는 4조2830억원으로 8분기만에 4조원대를 회복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2.9% 늘어난 9697억원으로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 효과를 톡톡히 봤다.

전장사업인 VS사업본부도 안정 궤도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연간 매출액이 5조8015억원으로 전년보다 6.1% 성장했다. 영업손실이 3675억원으로 전년(1949억원)보다 커졌지만, 4분기만 보면 20억원으로 흑자전환 기대감을 높였다.

문제는 여전히 MC사업본부다. 연간 매출액 5조2171억원에 영업손실이 8412억원이나 됐다. 영업손실이 전년(1조98억원)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생산 공장 이전을 통한 원가 절감과 V60과 벨벳, LG윙 등 전략 제품 출시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LG전자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MC사업본부에 달려있다는 분

석이 나오는 이유다. LG전자는 최근 MC사업본부 개편을 예고한 바 있으며, LG전자는 이날도 다시 한 번 사업 방향성 검토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정리 수준도 관건이다. IoT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MC사업본부가 미래 먹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LG전자가 해외 생산 기지를 매각하며 중저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사업부 자체는 남겨둘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VS사업본부도 성장에 중요한 열쇠다. 여전히 영업손실이 적지 않지만, 자동차 시장이 다시 빠르게 회복하면서 올해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에는 H&A 사업이 기여효과 등으로 다소 주춤할 전망, VS사업부문은 지난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지차 파워트레인 사업도 본격화하는 등 LG전자 성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휘발유값, 10주 연속 상승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450.5원으로 10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설 상여금 지급 기업, 지난해보다 줄었다

경총 527개 기업 대상 설문
58.1% "지급" ... 7.4%p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1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올해 58.1%로 작년(65.5%)에 비해 7.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에서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설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가 많은 반면, 300인 미만 기업은 경기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설 상여금 지급수준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이라는 응답이 88.2%로 높게 나타났다. 또 작년보다 적게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10.5%, 작년보다 많이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1.3%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3.9%는 올해 설 경기상황이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작년 설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었던 반면, 올해 설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올해 경영 실적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을 묻는 설문에서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3.5%,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40.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경총은 "올해 설이 있는 연초 경기상황에 대해 '전년보다 악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전망에 대해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4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작년 부진에 대한 저지효과와 향후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40.7%로 나타난 것은 불확실성으로 올해에도 경영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양성운 기자 ysw@

배터리3사, 매출 兆단위 돌파에도 '희비'

LG에너지솔루션 12.3조 흑자 유지
삼성SDI, 8.7조... SK이노, 1.6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K-배터리가 수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흑자 전환에 실패하면서 희비가 교차했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계 3사는 모두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의 '조 단위' 달성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을 끝으로 전부 매출이 조 단위를 넘어선 K-배터리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배터리 부문서 연간 기준 매출 1조6102억원을 기록하며, 3사가운데 마지막으로 조 단위 매출을 이루게 됐다.

지난해 12월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구 LG화학 배터리사업부)도 배터리 부문서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 12조3557억원, 영업이익 3883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삼성SDI는 에너지 부문(전지 사업)서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 8조7288억원, 영업이익 2413억원을 나타냈다. LG화학과 삼성SDI 양사는 연간 기준 전체 실적에서 각각 30조원과 1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도 달성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의 희비가 교차한 모습도 포착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의 우려가 나오던 분사 이후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한 반면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부문서 흑자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SDI는 당초 전기차 배터리 부문서 지난해 4분기 분기 기준 첫 흑자가 나올 것이라던 시장의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삼성SDI는 이번에도 전기차 배터리 부문서 흑자로 전환하지 못했다. 삼성SDI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



헝가리 코마롬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유럽 제1 전기차 배터리 공장.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오창공장.

서 "지난해 4분기 전기차 배터리 부문 흑자 전환을 기대했으나, 전기차 화재 리콜(시정 조치)에 따른 충당금 설정으로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감소했다"라며 "전기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자동차 배터리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해 연간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앞서 당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원인을 두고 논란을 겪고 있다.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아직 원인 규명 중에 있기 때문이다. BMW의 PH 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포드의 쿡가 PHEV 등에는 삼성SDI의 배터리가 탑재되는데, 화재로 인해 일부 리콜을 한 바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 '후발주자'로 여겨지는 SK이노베이션도 해외 생산 공장

등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의 영향으로 아직 흑자로 전환하지 못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연간 기준 배터리 부문서 영업손실 4265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외려 배터리 부문의 투자를 확대해 이 같은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주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있는 유럽에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헝가리에 유럽 제1, 2공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헝가리내 제3공장(30GWh)을 포함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41GWh에서 2025년 256GWh로 6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유럽 배터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제3공장은 올해 3분기 착공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